

유월절 어린 양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십사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무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개역, 출애굽기 12:1~14]

출 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부터 약 삼천여년 이상이나 된 일입니다. 그게 언제적인지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때쯤의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이고 그때 우리나라 형편이 어떠했는지 기록이 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이렇게 상세하게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래 전에 있었던 기록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어느날 우연하게 되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는 사건일까요? 제가 묻는 게 좀 바보 같단 생각이 듭니다. 뻔한 질문만 다 싶거든요. 그럼 질문을 조금 어렵게 하겠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입니다.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까 때가 돼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사건이라는 확실한 증거요.

몇 사람을 증거로 세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사백여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첫번째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피롭게 하리니(창 15:13)’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사건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디에 장사 지냈죠? 야곱의 시체는 애굽 땅에 묻혔어요?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 후손은 언젠가 다시 나오게 된다.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지내도록 하라.’ 그래서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리란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한 게 있었습니다. 뭘죠?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많은 걸 가지고 나왔지만 그 중에 요셉의 해골을 40년 동안 메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란 사건이 있기 전, 사백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던 일이란 것이 이 세 사람의 예를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을 크고 넓게 보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이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삼천년쯤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다.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

더라도 그것이 과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우리 조상들에게 줬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출애굽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실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를 오늘 저녁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월절이 있었던 그날 밤에 사실은 애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미리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잠깐 봅시다. 11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얹은’ 이 위가, 그래서 한문 성경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에’라는 것이 위 상(上) 자가 아닙니다. 왕위를 가리키는 그 위(位)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얹은 바로의 장자로부터’란 말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 찌라 애굽의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이랬는데 이 말씀이 문자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애굽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만이는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걸 가정입니다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끝에 가서 또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 사람 하나가 도둑질을 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생활 하고 있었으니까 뭐 훔쳐갈 게 있었겠습니까만 가끔 엉뚱한 도둑이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은 만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숨어 들어가서 몰래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도둑질 하러 갔는데요? 그래도 안 죽어요?

이스라엘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 집에 들어갔으니까 하고 장로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 잘 하시니까 앞에 분들은 대충 들으십시오. 자세히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 안 죽어요.” 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시면 오늘 더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안 죽는지 이유까지 물으면 대답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저 뒤에만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안 죽는답니다. 애굽 사람이고 만이 확실하고 도둑질하러 들어갔어도 그 사람 그날 밤에 안 죽는답니다. 왜 안 죽는지 이미 다 아시죠?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도둑질하러 갔다가 안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언뜻 살펴보면 참 이상한 식사입니다. 성경책을 읽었는데 아무 것도 이상한 게 없더라. 이러면 그분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큼이나 잘 아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읽었더니 의문 투성이고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물을 것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으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상한 게 나오거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하시는가?’라는 생각으로 그 이상한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뭐가 있죠?

무교병...

예? 무교병과 쓴 나물. 식단에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해요? 무교병은 하긴 저도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물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그러나 무교병 하면 늘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발효시키지 않은 떡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비슷하게 여겨지는 것이 떡국 같은 게 말랐을 때에 이게 무교병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마른 떡가래 한번 뜯어 잡수어 보셨어요? 먹을만하죠? 아마 비슷할 거라고 여겨져요. 쓴 나물요? 고기 먹을 때 쓴 나물은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 좋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만 여기에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것이 건강상의 이유는 아닐 거라고 여겨져요.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뜯기 어려운 무교병에다 쓴 나물. 그것 좀 이상하다. 이상한 거 맞습니다. 또 뭐가 있죠?

고기를 구워 먹으라.

고기를 날로 먹을 수는 없고 구워 먹는 거 정상 아니예요?

삶아 먹을 수도 있는데...

아, 삶아 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구워 먹어라.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죠? 그것도 좀 그렇네요. 그 외에도 진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예. 가만 있어봐.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것은 뒷말과 이어져야겠죠? 허리에 띠 띠고 그 다음에요.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무슨 음식을 이렇게 먹어요? 어떨 때 이렇게 먹죠?

급할 때.

급히 먹어라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급한 겁니다. 유월절 식사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또 있습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죠. 혹시 남으면? 맛있는 거 좀 남겨두면 안되나요? 예. 남겨두지 말고 그 다음에 혹시 남으면 소화시켜버려라. 태워버리란 애깁니다. 또 있습니까? 나중에 뒤로 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이상한 책일까요? 이상하지 않은 게 정상일까요? 이상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 이러면 이게 왜 이상할까 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한 성경은 의문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이상할 수밖에 없죠. 평생 성경을 읽으면 다 알게 될까요? 글썽요. 전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요새는 큰 소리치시는 분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해답을 찾아서 알고 다시 보면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 이 식사가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게 정상적인 식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까요?

유월절.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식사는 이상해요? 유월절 식사가 왜 이상하냐는 거죠. 유월절 식사가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유월절 식사는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불렀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배어버리라’ 그 다음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 5:7)’ 하고 말 합니다. 즉 여기 유월절에 죽는 양이 곧 누룩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죽은 이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식사는 좀 우리 눈에 식사로만 생각하면 아주 이상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한가 한번 봅시다. 가장 이상한 것이 양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설주에...

문설주는 집 대문에 있는 기둥이고 인방은 이 위에 쳐놓은 가로지른 막대죠.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왜 이렇게 바르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광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없을 텐데 옛날 애기 속에는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왜 발라요?

재앙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 피가 붉은 색이니까 아마 천사도 귀신이니까 붉은 피를 보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겠죠? (몇 분이 고개를 끄덕임) 아무 때나 끄덕끄덕 하면 안됩니다. 이 천사가 과연 그 피 색깔이 무서워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정답은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봐라. 천사도 피를 피해가지 않느냐. 붉은 색을 싫어하지 않느냐.” 붉은색 붉은색 하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80년도일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웃 교회의 학생들 집회에서 이 이야기 하는 거 듣고 분통이 터져서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하고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학생들을 많이 앉혀 놓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한 게 참 많은데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몇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고 앉아 있으니까 속에 천불이 나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동지에 팔죽 쑌지요? 팔죽 쑌는 이유가 뭐죠? 잡귀를 쫓아요? 팔죽 보면 잡귀가 도망을 가나요? 색깔 때문에 그렇죠. 그 붉은색을 보고서는 귀신이 도망을 간다고 해서 아마 팔죽을 쑤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 그 팔죽을 혹시 어디 집문예다가 바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냥 뿌렸어요? 벽에다 뿌렸대요.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우리나라의 동지에 팔죽 쑌는 풍습하고 보십시오. 얼마나 비슷합니까?” 똑같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으면서 환장하겠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말 써서요. 그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한국 사람들은 아들, 딸을 누가 점지 해주죠?” 할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삼신 할미죠.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삼신 할미죠. 성경에도 삼위일체가 있죠.” 이러는데 어찌 안 싸웠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얘깁니다.

성경에서 피를 바르는 이 의미와 비슷한 형태가 있다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이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은 먼 훗날에 닥쳐올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들어두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유월절하고 우리나라 동지 팔죽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전혀 없는걸까 하는데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깐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에 어찌면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일파가 우리나라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추측할만한 근거가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기독교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왔을거란 얘깁니다. 그때에 물어 왔을만한 사건이 몇 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확인할 수 없는 얘기니깐 그냥 한번 듣고만 마십시오. 순교할 때 목을 쳤는데 하얀 우유빛 피가 나왔더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누구 얘기죠?

이차돈.

이차돈요? 한 사람 더 있어요. 이차돈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 베임을 당했을 때에 우유빛 피가 나와서 병사들이 몸을 적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차돈하고 누가 먼저죠?

바울.

정말이예요? 이 사도 바울이 몇 백년 빠릅니다. 그래서 외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옛날 기독교 일파가 우리나라까지 이야기를 전했으면 그 바울의 이야기도 물어 왔을 터이고 그 이야기가 어찌면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로 각색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추측으로만 아십시오. 그렇더라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유월절 그 제사법이 이렇게 물어 와서 어찌면 팔죽모양으로 변형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설사 그렇게 관련이 있다 해도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유월절의 이 피의 의미를 팔죽의 의미와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찌니**라고 되어있죠. 매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에서 모두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어린 양을 취하되 식량 조절을 좀 하지요. 혹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우리 식구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웃집하고 계산을 해서 양 한 마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겠어요?

남기지 말라.

남기지 않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남기면 소화시켜라. 그걸 미리 줄이기 위해서 미리 양식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왜 남기면 안될까요?

떠나야 하니까.

떠나야 하니까요? 떠나야 하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죠? 이걸 단순한 고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살을 의미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먹다가 버려도 될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중시하는 것만큼 이것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에서 남기지 않도록 일일이 계산을 잘 해서 양을 잡으라는 애깁니다. 그 다음에 이 양도 꼭 1년 된 것, 그리고 수컷, 흠 없는 것, 이것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1년 된 흠 없는 수컷, 이것 어디서 봤죠? 레위기에서 제사 설명할 때에 잘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왜 1년 된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합니까? 잘 보세요. 제사법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양이 1년쯤 되면 사람에 비하면 청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나이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이라 하지만 1년 된 양입니다. 흠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봐도 이상한 거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꿀을 가끔 뜨지만 진짜 잘 뜬 꿀은 다 남 줘요. 우리 집에서 먹는 거는 남 주기 좀 곤란한 것, 어떤 거요? 날은 곳지요 뜨긴 떠야 되지요 그래서 떠보니까 묽어서 줄줄 흐르는 이런 거 있죠. 이걸 남 못 준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좋은 거 생기면 좋은 거는 전부 팔러 나가고 어떤 거만 먹죠? 찌끄래기 이래요? 우리 어머니는 특하면 ‘여~전거’[흠이 있는 것] 그러던데. 잘 된 거는 남 주고 어설픈 건 전부 우리가 먹어치우거든요. 이왕 먹어치울 것 같으면 먹는 거야 좀 흠 있는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유독 흠 없는 거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흠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식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암컷 아니고 수컷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번 우리 레위기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수컷보다는 암컷이 좀 나올 듯 싶은데도 굳이 수컷이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것을 찬찬히 따져 보시면 이해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에 동참하는 걸 의미합니다.

유월의 뜻이 뭐죠? 괜히 또 누구 말대로 오월 다음에 유월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몇 월에 있었나요? 하니까 유월. 유월절은 몇 월에 있었죠? 제가 되게 어려운 건 안 묻습니다. 다 있는 것만 물어요.

1월.

1월이죠. 2절 보세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에 있는 겁니다. 6월 아니고요. 그러면 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넘어간다는 절기죠.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별 많이 선 항목 중에 ‘월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장이 무슨 죄죠? 담넘어 다니는 거요. 그게 월장이거든요. 유월(踰越)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누가 넘어 갔는데요?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우리 집을 넘어간 날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가버린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바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가르치냐? 세월이 많이 지나 아이들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들도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이상해서 묻는 것 중에 “아빠 이 맛있는 고기 좀 천천히 먹자.” 할 거 아니예요? 그리고 허리끈 풀어 놓고 먹어야 실컷 먹을건데 허리끈 딱 졸라매고 신 신고 지팡이 짚고 그래서 급하게 먹어요. 언칠/제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먹어요? 아이들이 묻거든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무슨 대답요?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날 밤에 애굽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아났단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다시피 해서 우리는 쫓겨나듯이 나왔단다. 이렇게 먹고 급히 떠나야 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교병과 쓴 나물이 곁들여진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

는 걸 하나 하나 심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기념비를 참 많이 세웠습니다. 곳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워 놓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 민족이 저렇게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이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많이 물려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유년주일 학교에 참 고맙게 생각했던 것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애기 한번 했을란가 모르겠는데요 워낙 잘 하는 애기라서요. 애가 롤러 스케이트를 하나 사 달래요. 그래서 사주긴 사줘야 되겠는데 “야, 지금은 위험하니까 내년에 사줄께.” 하고 미뤄 뒀거든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 교회 갔다오니까 이놈이 마당에서 롤러 스케이트 탄다고 철버덕거리고 있더라구요. 너 그것 웬거나 하나까 교회에서 상으로 탄 거래요. 교회에서 상 탄 것 하나까 상상이 잘 안되더라구요. 교회에서 그런 상을 줬을리가 없는데 그리고 그런 상을 줬다는 걸 만약에 장로님들이 아시면 교회 돈 함부로 쓴다고 난리가 날텐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기도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 초창 주일에 상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이 2등을 했다고 그래요. 1등한 학생이 여학생인데 이 앞에다 상품을 진열해놓고 “1등 나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 가져가.” 이랬답니다. 그래서 1등한 학생이 커다란 인형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데 “2등 홍은표” 하나까 애가 총알같이 튀어나오더니 지 혼자 나오는데도 롤러 스케이트를 탁 끌어안고 뛰어 들어가더랍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웃었대요. ‘재가 저거 하나밖에 없는 롤러 스케이트를 1등 짜리가 가지고 가면 어찌나’ 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데 1등이 다른 걸 쥐고 갔단 말이에요. ‘2등’ 하자마자 총알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쥐고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선생님들이 보니까 그렇게 우습더라요. 그리고 ‘저놈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것 얼마 하는데?” 그때 3만원 줬다 그래요. “그런데 애들 상품을 그런 걸로 주면 장로님들이 되게 뭐라 할텐데.” 하나까 “걱정 안해도 돼요. 선생님들 주머니 털었어요.” 이러더라구요.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선물 준 게 고마운 게 아니고 제 생각엔 뭐냐 하면 애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다 뭐 어쨌다 하는 것은 이걸 세월 지나면 잊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도 애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날 부르기만 불러라. ‘저 롤러 스케이트 누가 가져가면 어찌나’ 하고 가슴 졸이면서 있었던 그것이지요. 애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런데 애는 저거 아버지가 롤러 스케이트 사줬으면 그것 한 며칠은 좋아하죠. 그 감격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애는 평생 그것 안 잊을 겁니다. 그런 기억이 우리 아이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전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런 행사 또 할거나 하나까” “해야지요” “그러면 그때 내 찬조 좀 할게” 결과적으로는 롤러 스케이트 값은 어마어마하게 제가 손해를 봤습니다. 제가 따블로 지금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비싼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것이 그렇게 고마웠다는 애입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뭐 어찌고 해도 그때 그 사건은 못 잊어버립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추억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남겨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애굽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전달해주고 가르치는 일을 참 열심히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이 유월절 행사가 이루어진 그 날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 치더라도 지금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죽음이 휩쓸고 가는 그날 밤이거든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는 애굽입니다. 애굽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옳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 잘 됐다.’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좀 갈등이 생깁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의 너희들 하나님 맛좀 봐라.’ 아니면 어떡해야 돼요? 저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앉아서, 그게 괴로운 일이었는지 즐거운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고기

뜯고 있었어요. 급하게. 좀 환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뭘 상징하느냐 하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 다 버려두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만나러 떠나야 할 그 때, 그날이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는 날이 될 것이란 얘깁니다.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잔치에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날에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맞으러 가야 합니다. 그날이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날이 될 것임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찌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있죠? 영원한 규례, 대대에 지킬지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유월절이라는 교회 절기 없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 한 이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잘 지켰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꼭 유월절 양 잡는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니까 언제 돌아가셔야 되죠? 유월절 양 잡는 날 돌아가셔야죠. 참 잘 맞춰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맞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잔치를 먹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로마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박해를 많이 받을 때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유가 있었나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식인종이란 말이 돌았을까요? 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뭘 하느냐 감시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주로 지하에 모여서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감시하고 숨어서 살피는 사람이 조금 떨어져서 킁킁한 데 붙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려요. 뭘가를 뜯어먹고 마시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요한복음 6:53~56)'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쪽 귀통이에 숨어서 듣자 하니까 굴 속에서 저희들끼리 둘러 앉아서 뭘가를 뜯어먹고 뭘가를 마시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니까요. 야 저거 어느 놈, 누구 하나 잡아서 뜯어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았던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 잡아 먹는 족속이다' 이런 루머가 퍼졌더라는 얘깁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하시기 전에?

만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찬식.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먹을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이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낭독을 했을 겁니다. 그걸 의미는 제쳐 놓고 몰래 들어보면 영락없이 식인종 맞습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잡아 먹은 그 양이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의 그림자요 형상이요 모양인 것이죠. 오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유월절 양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 피와 살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에 그 유월절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양이 좀 적지요?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여러가지 의미가 있고 많은 생각이 있어야 할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양이 너무 작다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엔 진짜 포도주 같았는데 요즘은 가만 보니까 벡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물을 탄 포도주냐 아니냐

도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피와 살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출애굽 시의 유월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그렇게 먹음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서 그날 밤에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 양의 피와 양의 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성찬식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인 장자가 도둑질하러 거기 들어왔었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때는 확실히 안 죽었다 해야 합니다. 안 죽는 이유가 뭡니까? 천사정도 되면 이 집안에 도대체 어떤 놈이 들어 있는지 좀 보고 지나가야 안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때문에...

대답을 너무 잘하십니다. 이 천사 눈에는, 이 천사 눈은 곧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뭐만 보이고 하면 핏자국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눈엔 피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존재며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고 여러분들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고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났습니까?

대홍교회를 지을 때에 그 뒤에 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변 땅보다 독이 높는데 물이 흘러가다가 말라 버리면 군데군데 웅덩이가같이 조그만하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물이 조금 고여 있는데 그 안에 고기 몇 마리가 파다닥거리고 있는 걸 봅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가 지금은 살았다고 그렇게 파다닥거리고 있다라는 한 몇 일만 지나 그 물마저 말라버리면...” 참 불쌍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불쌍하다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것들이 그 중에서도 “야, 임마 니보다는 내가 세 니까 비켜.” 하고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불쌍한 놈입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안 보시는 거예요. 뭐만? 피 묻었냐 안 묻었냐 그것만 보고 통과 아니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애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릴 위하여 죽으신 그것만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만하면 천국가겠다 싶은 거 뭐 있거든 한번 내보 보십시오. 뭐가 있을랑가요. 그런 분은 아예 제쳐 놓고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다 하기는 하는데 이거 보면 안되겠고 이것도 보면 안되겠고 자신을 들여다 보면 난 왜 이리 못난 인간인가 싶은 것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의 눈이고 우리 자신의 눈입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만 들어오는데요? 우리 몸 어디엔가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 보신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만하면 잘났지요?” 할 분은 아마 여기에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빼고 “이것도 안됩니다. 하나님 나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이 말도 여러분은 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언제 그것 보더냐?” 할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언제 그것 본다 하더냐?” 안 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깎아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는 것은 이 피가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 이 사실 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 애굽인 도둑은 당연히 죽을 사람이지만 그날 밤에 죽지 않습니다. 피묻은 집 안에 있었거든요. 핏하러 들어갔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다 사람입니까? 그 애굽 사람입니까? 애

굽 사람 같아요? 애굽 사람이었든지 이스라엘 사람이었든지 그건 아무 문제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오로지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 이것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피 어떻게 묻혀요? '그 참 피 좋은 거네' 어떻게 묻히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그걸 믿는 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이 믿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만 믿어진다면 그 다음은 좀 편안하게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동안 내내 죄만 짓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뭐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놈일까?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내일 당장에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딱 한가지입니다. 그런 건 안 보인다는 얘깁니다. 그저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는 그게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유월절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위해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부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글쓰는 솜씨만 좀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애굽인의 이야기를 소설로 한번 써 봤으면 하고 제목까지 정해 놓고 아직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중에 문학소녀의 꿈을 키우셨던 분이 계시다면 한번 써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날 사업은 망쳤습니다. 왜요? 잠을 자야 뭐 또 한 건 할건데 잠 안 자고 밤새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집집마다 난리가 났거든요. 만이가 안 죽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집 저집 보니까 만이란 만이는 다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집마다 사람 죽었네 하다가 몇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공통점을 금방 알아냈겠죠. 하필이면 만이가 다 죽었는데 나도 만이인데 나는 왜 안 죽었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난 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전역에 죽음이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안 지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해답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이 사람은 출애굽할 때 같이 묻어 나오는 걸로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고 묻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끼어서 중대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이 끼어서 같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마 이 애굽 사람도 묻어 나와서, 나와서 뭐 하겠어요? 아마 광야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거기에 앞장서는 인물로 설정을 하면 '야 그거 소설로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소설을 썼으면 하는 동기가 뭘겠습니까? 유월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것을 그 이야기를 소재로 쓰면 참 좋겠다. 제가 공리를 다 했습니다. 끝내 글쓰는 솜씨가 없어서 묻어 두기로 했지만 혹시 쓸 마음이 있으신 분에게 기꺼이 소재를 양도하겠습니다. 한번 써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의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 보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 몸에 묻어 있는 이 예수님의 피만 보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